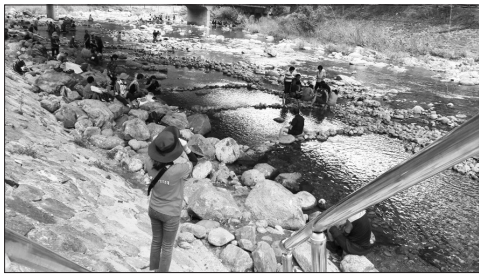




장수군 장계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2일 장계면 상가 밀집 지역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유해업소 및 술·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장계면 맞춤형복지팀이 참여해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을 펼쳤다. 점검팀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부착 여부 확인 등을 지도·점검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계면 시가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나의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청소년 보호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소방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3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남원 관내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은 132건으로 경상 100건, 중상 1건, 사망이 33건을 차지했다. 또한 사망자 발생원인중 안전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고 구명조끼 미착용과 음주 후 수영, 다습기 채취등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은 △물놀이 전 준비운동 △여름철 물놀이 시 수시로 날씨 정보 확인 △과음 후 물놀이 금지 △사고 발생 지역 혹은 입수 금지 지역 물놀이 금지 △절대 혼자 수영하지 않기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조하려고 성급하게 뛰어들이지 않기 등이다. 소재실 남원소방서장은 "물놀이 사고 발생의 대다수가 안전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한다"며 음주·야간 물놀이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 어르신 효자노릇 톡톡

김제시, 이용객 가장 많은 시장통 버스정류장 내 상가 조성...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가 전통시장과 병원 등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장통 버스정류장(요촌동 381-2) 내 상가에 조성되어 있다. 쉼터 내에는 냉·난방기, 버스정보안내기(BIT), TV 등이 설치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폭염과 폭우에도 가정의 생활과 치료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장과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쉼터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과거 자가용이 없는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폭염과 폭우, 폭한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전통시장과 인근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가 조성된 후, 어르신들은 쉼터 내에서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TV를 시청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



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이 보다 더 쾌적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쉼터 내에 공기정화 식물로 이루어진 화단을 추가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어울림 쉼터 확대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무주소방서, 세계잼버리축제 특별경계근무 실시

무주소방서는 8월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새만금 세계잼버리축제가 개최되는 기간동안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 139명, 의용소방대원 310명, 소방차량 25대 등 가용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무주에서는 매일 160여명의 잼버리 단원들이 태권도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소방력을 근접배치하여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소방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축제 기간동안 무주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추억만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 하계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운영 총력

임실군이 값비싼 수입 사료 대체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하계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운영에 돌입했다.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사료작물 품질 저하 등으로 사료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은 작기 수확을 통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신규 조사료 수확기 확보, 대행 인력 전문 교육 실시 등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 기준 100여 농가 80ha 신청을 받은 정도로 생산 농가 및 축산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작기 수확을 통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동시에 저렴한 대행료를 책정하여 소값 하락 및 각종 생산 비용 상승,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조사료 재배 활성화는 축산 및 낙농가의 생



산비 절감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농작업 대행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사료 자급을 향상과 고품질 조사료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오수면, 원동산 풀베기사업 추진

임실군 오수면이 지난 2일 의견비가 있는 원동산 내부와 주변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풀베기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풀베기사업은 오수 원동산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원동산에서 배일동 명창의 버스킹 공연(의견문화재단위원회, 오수개 연구소 및 오수면 사회단체 등 주관)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문 오수면장은 "주민들과 원동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군, 취약계층 아동·가족 대상 응급처치교육

진안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위험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자 진안군의료원과 연계해 8월 3일, 10일, 17일 총3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님과 아동은 응급상황 시 대처법을 듣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오늘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군 드림스타트업 관계자는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이 주변에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계속되는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져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6건, 2021년 19건, 2022년 21건으로 집계됐다.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 연결부 전선 훼손 확인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낙엽, 먼지 등) △실외기는 벽과 10cm 이격해 설치 △단독형 콘센트 사용 △과한 작동 소음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간단한 점검으로도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실외기 상태 확인·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ju Maeil newspaper, including website,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